



사도신경

찬송가 144.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대표기도 ※ 기도자가 없을 시 생략 가능

말씀 읽기

⁷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⁸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⁹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¹⁰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¹¹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말씀 나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자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릴 테니 제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원했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소원은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미 실현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도우시는 했지만 그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는 있지만, 다윗 안에 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보다, 요셉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더욱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목숨과 당신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눔

1.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있나요?
2.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복을 나누어보세요.